



오감 자극하는 '푸통푸통' 타이완 여행

여행하고 쌓는 추억의 절반은 그곳에서 먹은 음식에 관한 기억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타이완(대만)은 가볼 만한 곳이다. 골목골목이 먹거리 여행의 추억을 남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하는 하루 다섯 끼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 16세기 포르투갈 배가 태평양 서쪽에 초록빛 숲이 우거진 이 섬을 발견하면서 '아름다운 섬'(Ilha Formosa)이란 이름으로 서양에 알려졌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물섬'(台灣是寶島)이라 부른다.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타이완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범상치 않은 다양함으로 여행자들의 오감을 자극하는데...

글 · 사진 정동현(연합뉴스 포토데스크)



1 중정기념당에서 매 정시(09:00~17:00)에 열리는 근위병교대식 2 장제스 총통이 타던 세단. 3 용강제 쓰루시 망고빙수 4 용강뉴러우면 가게 앞 기다리는 손님들

4월 초, 타이베이 쑹산공항(松山機場)에 도착해 처음 들이마신 공기는 따뜻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부드럽다. 녹색정원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로수는 이곳이 여름 초입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었다. 도로 이정표의 한자는 우리가 쓰는 번자체라서 친근감을 준다. 거리상점 간판을 보면 중화권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하지만 깨끗한 골목과 아담한 카페는 일본풍이다. 시장의 열대과일은 동남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타이완은 경상도 크기만 한 섬나라다. 인구는 약 2천300만 명. 타이완의 정식국호는 중화민국이다. 오늘날 입헌민주공화제가 있기까지 스페인, 네덜란드, 청나라가 통치했고 1895년부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식민지배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권이 이 섬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타이완이 됐다.

수도 타이베이에서 장제스 총통 본명인 중정(中正)을 따서 세운 국립중정기념당에서 타이완 여행을 시작했다. 명필 왕희지의 서체로 집자한 '自由廣場(자유광장)' 현판이 걸린 '오관패루'(문이 5개인 기념비적 건축물)를 지나 한참을 걸었다. 청색 지붕의 중정기념당이 89개의 계단 위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맞이한다. 중정기념당



안에서 매 시각 정시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장제스 동상 뒤 벽면엔 '倫理(윤리)' '民主(민주)' '科學(과학)'이란 글자가 적혀 있다. 그의 정치철학으로 윤리는 민족주의, 민주는 민권주의, 과학은 민생주의를 실천하려는 쑨원(孫文)의 삼민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동상 옆에는 타이완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가 걸려 있다. 올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에선 타이완 선수들이 국기가 아닌 국가올림픽위원회 깃발을 들고 입장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입김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정기념당 근위병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타이완의 독립 행보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다.

'衣·食·住' 아닌 '食·衣·住'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광이다. 타이베이 변화가

에 있는 용강제(永康街)로 갔다. 이곳은 맛집들의 집합소다. 딤섬의 최고 맛집 '딘타이펑' 본점은 동문역 부근에 있었다. 중업원 가슴에는 자신이 구사할 줄 아는 외국어를 손님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국기 배지를 이름표와 같이 달고 있다. 딤타이펑이 뉴욕타임스의 세계 10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사오롱바오(小籠包)는 타이완 대표요리가 됐다. 얇은 겉피에 주름을 잡은 사오롱바오는 작은 대나무 통 안에서 찌낸 육즙이 가득한 만두다. 스푼 위에 만두를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살짝 터트리고, 생강채를 올린 후 입안에 넣으면 감동이 입안에 가득하다. 맛있는 음식은 누구에게나 같은 느낌을 준다. 식당 안에서는 맛있는 탄성이 이구동성으로 울려 퍼진다.

또 다른 딤섬 레스토랑인 가오지(高記)는 중국 저장성 출신인 주인이 열여섯 살에 상하이에서 사오롱바오 만드는 방법을 배워 1949년 타이



1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 타이베이101
2 타이베이 지하철 환승역에 붙은 한국영화 포스터
3 타이베이101 앞 'LOVE' 조형물
4 스린아시아에서 전병을 팔고 있는 노부부
5 상아투화운룡문투구
6 돼지고기 덩어리처럼 생긴 육형석
7 고궁박물관의 간판급 보물인 취옥백채

베이에 문을 열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라고 한다. 소고기튀면의 맛집인 웡강뉴러우멘(永康牛肉麵) 가게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긴 줄이 보인다. 상당한 기다림 끝에 맛본 진한 국물과 두꺼운 면발의 조화가 멋지다. 커다란 소고기 덩어리가 면발 위에 고명으로 얹어져 있다. 식당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던 손님들은 그 맛에 반해 금방 수고를 잊은 듯했다. 전주나이차(珍珠奶茶)는 검정색 전분 알갱이가 들어간 버블티. 구멍이 큰 빨대로 먹을 땐 검은 진주가 입안에 딱 차는 느낌이다. CNN이 추천한 쓰무시 망고빙수, 최고 인기 디저트인 누가크래커, 그리고 파인애플 잼이 들어간 펠라수 등 이미 한국인에게도 친숙해진 먹거리들의 유흥이 가는 곳마다 이어진다.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衣)·식(食)·주(住)'가 타이완에서는 '삭·와·주' 순서로 바뀐다. 웡강제 안쪽 길로 걸어가면 타이베이 골목의 매력들이 숨어 있다. 아기자기

한 상점들이 눈길을 끈다. 도심 속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청티엔지에(靑田街) 골목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다. 일본식 고택을 개조해 만든 청티엔치리우 카페에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다. 담장엔 빨간 꽃들이 한창 예쁘게 피었다. 산책이 즐겁다. 걸을 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한국영화 포스터 볼 수 있는 지하철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룡산스(龍山寺)는 기도할 잘 받는 사원으로 유명하다. 출근하면서 향을 피우고, 퇴근하면서 다시 들러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향을 두 손으로 모아 머리 위로 올린다. 부정을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향내가 진동한다. 룡산스 주변은 타이베이에서 도심이 제일 먼저 형성된 망카(艋舺)다. 중국 대륙과 타이완 단수이(淡水)를 오가며 물건을 나르던 작은 배를 망카

라고 부르는데, 지역이름이 됐다. 보피랴오(剝皮寮) 옛 가리는 룡산스와 함께 국내에 소개된 영화 '맹갑'의 배경이 되었던 영화세트장이기도 하다. 청나라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거닐다보면 타이완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착각을 하게 마련이다. 타이베이 지하철인 MRT는 편리하다. 지하철역 안에서는 반가운 한국배우들의 얼굴이 눈에 띈다. 한국영화 포스터 '궁합'(野蠻公主 玩婚記)이다. 타이완 한류(韓流)는 클론의 '콩따라 샤 바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시내 곳곳에는 한국음악이 흐른다. 시정푸(市政府)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타이베이의 가장 핫한 도심이다. 멋진 가로수와 날찍한 가리는 쾌적하다. 쇼핑몰 건물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통해 타이베이 101로 향한다. 타이베이101은 높이 508m, 지상 101층으로 타이베이의 상징이다. 번영을 의미하는 파차이(發財)의 '파'(發) 발음과 비슷한

'팔'(八) 자를 길한 숫자로 좋아하는 중국문화를 반영해 8층씩 묶어 8개층을 대나무와 연꽃잎을 모티브로 지었다고 한다. 옥빛 색깔의 101타워 앞의 빨간 'LOVE' 조형물은 명물이 됐다.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은 도로가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이 조형물 앞에서 인증샷을 날리고 바로 버스에 오른다. 매년 12월 31일 밤 새해를 알리는 멋진 불꽃 쇼가 펼쳐지는 타이베이금융센터는 지구촌 랜드마크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중국 베이징 자금성의 고궁 박물관에 있던 수많은 유물을 품은 세계 5대 박물관이다. 장제스는 옮길 수 없었던 자금성은 빼놓고 중국 왕실의 보물 65만 점을 군함으로 실어왔다고 하니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유물을 모두 보려면 20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보물 가운데도 백미는 있다. 바로 상아투화운룡문투구(象牙透花雲龍紋套球). 이 보물은 상아를 깎아 공 안에 공이 17개 있는 형태다. 상아 공을 만들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에 구멍을 내고 파내어 다시 공을 만드는 방식으로 3대에 걸쳐 완성했다고 한다. 배추모양의 옥 위에 여치와 메뚜기가 앉아 있는 취옥백채(翠玉白菜)는 청 말기 광



서제의 왕비인 서비가 혼수로 가지고 온 예물로 알려져 있다. 천연석이지만 겹질에 탐구명이 실려 나니 돼지고기 덩어리 모양인 육형석(肉形石), 날개 달린 네발 짐승의 상상 속 동물모양인 벽사(辟邪), 황제가 모공에게 하사한 제례용 용기 안에 500여 글자가 새겨진 서주만기모공정(西周晩期毛公鼎)은 모두 고궁박물관이 자랑하는 간판급 보물이다. 올리브 씨앗에 배와 뱀사공, 적벽부 360자의 전문을 새겨 넣은 진조장조감람핵주(陳祖章雕橄欖核舟)는 전시 목록에서 빠져 안타까웠다. 한글음성안내기를 들으면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것만으로 3시간 넘게 걸렸다.

'청국장 지리 가라' 취두부 냄새
타이완 섬 한가운데로 북회귀선이 지나간다. 북반구에서 열대와 아열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아시아가 발달한 이유는 더운 낮보다는 서늘해진 새벽시간부터의 활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스린야시(士林夜市) 야시장의 어어젠(蚵仔煎)이 식탐을 자극한다. 현지 특산물인 굴을 고구마 가루로 섞은 녹말물로 반죽해 만든 굴전이다. 한쪽에선 묘한 냄새가 진동한다. 악취음식의 순위를 다투는 취두부 냄새다. 청국장의 수준을 훨씬 넘는다. 악명 높은 흥어회를 악취음식으로 여기지 않는 내게도 취두부 냄새는 고약했다.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취두부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본다. 신발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다고는 하지만 취두부와 친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았다. 숙소 가까운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세계에서 편의점이 가장 밀집된 곳이 타이베이라고 한다. 요묘한 냄새가 난다. 전기밥통에서 간장과 오향, 찻잎으로 졸이며 삶는 달걀인 차예단(茶葉蛋)이다. 색다른 식품들이 구미를 당긴다. 커다란 소고기가 덩어리로 들어간 만만대찬 우육면을 비롯한 다양한 컵라면들이 매대 한 편을 채웠다. 커다란 병 요구르트, 닭발 조리팩, 감맛 과자, 그리고 망고맥주가 보인다. 그 옆엔 파인애플맥주도 있다. 타이베이 북쪽 여행지로는 예류(野柳), 스펀(十分). 진과스(金瓜石), 지우펀(九份) 네 곳이 대표적이다. 이들 네 곳은 앞글자를 따서 '예스·진'자로 불린다. 예류를 보지 않고는 타이완 여행을 해봤다고 할 수 없다. 예류는 자연이 빚어낸 비경이다. 수천 년간의 침식·풍화 작용이 만들어낸 바위 모양은 우주선을 타고 도착한 다





구멍이 숭숭 뚫린 기묘한 바위들이 해안에 박혀 있다. 바람과 바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에류지질공원에서 처음 만난 하트바위를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싶은 사랑이 흘러온다.

큰 행성 같다. 여왕머리바위는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 왕비의 아름다운 두상을 닮았다 해서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한다. 그 앞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머리바위의 모습은 여러고 가느다란 모습이다. 지질학자들은 수년 내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예고했다. 타이완 당국은 인위적으로 여왕머리를 보존하기보다는 자연에 맡기기로 했다. 세상엔 안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타이완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펀은 1910년대 탄광업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그 후 탄광업이 몰락하면서 철길을 이용해 관광객을 나른다. 스펀라오지에(十分老街)는 철길 위에서 천등을 날리는 명소다. 철길 옆 상점 대부분이 천등을 판다. 천등을 둘러싼 종이의 네 면에 잉크를 듬뿍 문힌 붓으로 소원을 빼곡히 적어 날린다. 천등을 만들어 날리는 과정은 여행객의 핸드폰 속에 기념사진으로 남는다.

현장 가이드들은 여행객이 들고 있는 천등을 돌려가면서 네 면에 적힌 소원을 함께 찍어준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하늘이 온통 천등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소원을 하늘에 알리며 기도한다.

일본인 관광객이 유난히 많은 지우펀 거리

진과스는 일제 강점기에 철로를 공사하다 금광이 발견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금광이 고갈되자 폐광마을에 황금박물관을 만들었다. 박물관에서는 유리상자 속에 든 220kg짜리 황금덩어리를 만날 수 있다. 이 황금을 만지면 재물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연신 손을 넣어 본다. 산등성이를 따라 만들어진 철길 위 빈수레와 강도 체험관은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진과스에는 일본 히로히토 황세자의 방문에 앞서 풍수까지 생각해 지었다는 일본식 별장 '태자빈관' 정원이 있다. 태자빈관 앞 식당에서는 커다



1 광부도시락을 재현한 돼지고기튀김 덮밥
2 소원을 적어 날리는 천등



2

3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오세였던 홍마오청
4 좁은 골목길에 예쁜 홍등이 걸려 있는 지우펀
5 하루를 열심히 달려온 태양은 바다와 만나는 단수이 강 끝으로 넘어간다.



3



4

란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광부도시락을 먹는 다. 일화용 용기에 밥과 김치, 돼지고기튀김을 얹은 덮밥으로 그 옛날 광부들이 먹던 도시락을 재현한 것이다. 광부도시락을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은 이들은 황금박물관 지도가 그려진 보자기로 싸인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주문한다. 지우펀은 금광 채굴로 한때 번성했다가 쇠락한 마을이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미로 같은 골목길을 메우는 명소가 재탄생했다. 1989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비정성시'(悲情城市)가 지우펀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일제에서 해방된 타이완의 한 가족이 겪는 역사적 격변의 모습을 그린 이 영화의 영향으로 지우펀 거리에는 유난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다. 무리지어 수치루(鬮崎路) 계단을 오른다. 과거의 식민지배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걸까? 아니면 지우펀의 흥등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일본의 식민지배를 50년간이나 받았던 타이완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의외로 반감보다는 호감이 다소 강한 편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던 어두웠던 시절이긴 했지만 자국 발전의 한 시기로 보는 까닭이다. 지우펀에서 가장 변화한 곳인 지산지에(基山街) 골목길의 언덕에 오르면 바다 풍경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단수이(淡水)는 타이베이 도심에서 지하철 1시간 거리로 타이완의 명품 저녁노을을 선사한다. 단수이역에 내려 홍마오청(紅毛城)행 시내버스를 탔다. 홍마오청은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타이완에 가장 먼저 상륙한 지역이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의 붉은 건물이 홍마오청인 요새다. 홍마오는 붉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으로 네덜란드인을 지칭한다. 해질녘엔 단수이 강변을 거닐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게엔 이곳 명물 대왕오징어 튀김과 대왕 카스테라가 유혹했다. 자전거를 타고 강가를 달리는 것은 낭만

그 자체다. 강가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질 즈음 뒤편에서 영화 라리랜드의 주제곡 'City of Stars'가 들려왔다. "별들의 도시여, 모두가 바라는 단 한가지는 사랑이라고..." 타이완 여행에 나서기 전에 본 영화 '음식남녀'에서 "인생은 음식남녀다. 맛있는 것 먹고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란 대사가 나온다. 타이완 음식은 맛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경치는 아름다웠다. 나에게 타이완 여행은 '푸통푸통(두근두근)'한 추억으로 남았다. ♡



5